

그람시의 이데올로기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

조 향 제 *

〈목 차〉	차
I. 문제의 제기	1. 그람시의 이데올로기주의적 해석
II. 레닌과 그람시, 그 차이점	2. 다시 레닌과 그람시로: 호프만과 포가치의 문제제기
III. 그람시의 이데올로기주의적 해 석 (Ideologism)에 대한 비판	IV. 맷 음 말

적어도 이태리적 맥락에서는 그람시가 레닌주의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레닌이 그람시주의자였다. (Spriano)

I. 문제의 제기

서구 혁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으로서 그람시(A. Gramsci) 사상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진 것이 이미 짧지 않은 기간이 되고 있다. 전후 이탈리아 공산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응호하기 위해 그람시를 원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람시의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의 일부가 영역되면서 그람시의 사상은 서구 마르크시즘 전통 내의 단순한 이론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주요한 실천의 조류로 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그람시는 서구 마르크시즘의 전통 내에서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가장 서구적인 길을 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구의 레닌이스트’ (Pierson, 1986:846)나 ‘러시아 볼셰비키의 나머지 한 쪽’ (Boggs, 1984:서문)과 같은 평가들은 그람시 이론이 차지하는 지평을 레닌을 비롯한 러시아 사회주의 이론진영에 대비시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그람시 평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경제주의와 러시아 혁명 이후 하나의 ‘공식’으로 여겨지던 레닌주의에 대한

*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신문학

비판에 기반하고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이 코민테른의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토, 레닌주의에 대한 회의를 통해 그람시 지평의 독특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거론되고 있는 그람시의 (레닌주의와의) 차별성은 자본주의 정치구조 분석——정당·국가론——과 혁명전략에 있으며 공통점으로서는 경제주의에 대한 반대, 혜게모니 개념, 정치의 (상대적) 독자성과 조직·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강조, 인간의 실천적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주목에 모아져 있다. 그러나 이 차별성과 독특성의 강조 정도에 따라 그람시는 다양한 해석의 틀에 놓여져 있다. 레닌과 그람시를 같은 사상적 궤적에 놓고 있는 연구들이 그람시를 레닌파의 차별성이 가미된 ‘확대’의 형태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마르크스까지를 포함한 기존의 전통적(classical) 마르크시즘과는 전혀 다른 ‘그람시의 길’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그람시 논쟁사에서도 위 출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큰 뭇을 하고 있다. 우선 그람시에 있어 토대의 위상(‘필연적 결정론’이냐, ‘비필연적 상응성’인가), 계급의 문제(그의 ‘민중적—민족적’ 개념과 전통적인 ‘계급’과의 관계), 시민사회와의 합의 등에 의해 그람시 해석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람시의 혁명전략(진지전)을 ‘점진적 의회주의의 길’로 한정할 것이냐의 문제 또한 위에 언급한 레닌과 이후의 서구 혁명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테제(국가독점자본주의론+반독점동맹)와의 관계와 연관해서 그람시 해석의 다양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실천적인 수준에서도 유로코뮤니즘과 관련해서 그의 지평은 더욱 다양한 평가를 낳고 있다. 그의 진지전은 ① 이데올로기와 문화투쟁에 대한 강조에 기반한 보다 넓은 동맹과 통일전선(United Front), ② 점진주의(gradualism)와 과정으로서의 혁명, ③ 규율주의(abstentionism)·최대 강령주의(maximalism)·봉기주의(insurrectionism)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인식됨으로써 (Pierson, 1986:852) 개량주의의 협의를 그다지 후련하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이는 ‘이탈리아의 사회주의로의 길’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서구 국가독점자본주의론자들의 반독점계급동맹 전략이 지닌 국가에 대한 도구주의 인식에 기반한 의회전략이나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우익 유로코뮤니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진적인 실천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Jessop, 1982:36).

이러한 그람시해석의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스펙트럼에 대해 아직 필자는 정리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영국적’ 그람시 해석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Post Marxism)으로 비약하는 라클라우(E. Laclau)와 무페(C. Mouffe)의 연구(1985)와 *New Left Review*지를 중심으로 벌어진 그 이후의 논쟁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론적 천착에 끗지 않게 서구사회학 고민에 대한 ‘동정적 이해’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이 이 연구에 대한 본격적 검토를 나중의 자리로 미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람시에 기반하여 반환원론적 이데올로기론을 펼치고 있는 무페의 초기 발상에 대한 검토로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위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론을 보다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위해 2장은 레닌과 그람시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기준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람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의 성격이 결국 이 부분에 기초해 있고 무페의 반환원론적 이해 역시 그람시의 독특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장은 그 차별성의 정도에 있어 가장 ‘극단적’ 견해로 평가받고 있는 보비오(N. Bobbio)의 견해와의 연관 하에 무페의 반환원론적 그람시 이해의 성격과 그 비판을, 마지막으로 그람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레닌과 결별한 ‘그람시의 길’에 있지 않다는 점을 호프만(P. Hoffman)과 포가치(D. Forgacs)를 빌어 제시해 보고자 했다.

Ⅱ. 레닌과 그람시, 그 차이점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람시와 레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같이 거론되고 있다.⁽¹⁾

첫째, 그람시의 헤게모니개념 사용이 레닌의 개념을 일정하게 수용하고 그 의미 이상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옥중수고』 이전에는 레닌적 의미의 헤게모니 개념을 수용(특히, 「남북문제에 대한 소

(1) 이 절에 대한 개괄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즉 당시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여러 조류들과 이후의 소비에트 전략(스탈린주의)을 레닌의 것으로 혼동·구획하고 그것과의 차이점에서 그람시를 차별화해내는 맹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코민테른의 전략과 스탈린주의를 중심으로 레닌과 그람시를 대비하는 논의는 사실상 이 글에서의 논의의 기초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 글에서는 이를 간헐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고』)하고 있으면서 『옥중수고』에 이르러 레닌적 의미를 확대시켜 새로운 의미로 정립했다고 보는 것이다(SPW II:443, Bates, 1978:352, Boggs, 1976: 159, Mouffe, 1979:94, Adamson, 1980:244, Bocock, 1986, 41-42). 여기에서 이 새로운 확대의 의미는 이전의 레닌의 개념과는 다른 문화적·이데올로기적 부문의 강조라는 측면에 있다(Anderson, 1977:20-22, Adamson, 1980:172, Femia, 1981:25).

이들은 대체로 그람시 사상의 발전체계 내에서 이 개념이 지닌 실질적인 함의의 전화가 이루어진 배경으로 1922년 코민테른 4차 대회 이후 코민테른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쟁을 들고 이 논쟁 속에서 해게모니 문제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의 지배 양식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전화되었다고 보고 있다(Mouffe, 1979:94). 앤더슨(P. Anderson) 역시 해게모니 개념이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을 부르주아 지배의 사회·정치적 구도 속에 매몰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의 내용 자체를 정치투쟁과는 분리된 경제투쟁으로 제한하고(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분리), 그럼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의 속에서 자기 지배의 구도를 영속화시켜 나가게 된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977:28). 홀顿(S. Hall, et al.)은 해게모니가 이데올로기적 지배 뿐만 아닌 계급지배의 변증법적 관계의 총화를 지칭한다고 봄으로써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977:48-49).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한편으로는 레닌파의 연결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옥중수고』 이후의 그람시를 레닌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정하게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람시의 역사적 블력 개념, 진지전 전략이 레닌의 계급동맹, 연합전선 전략을 서구의 형태에서 반복(SPN:237-238)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들간의 차별성은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주장된다. 레닌의 연합전선전략이 1920년대 초기 노동운동의 혁명적 기운의 쇠퇴 시기에 일시적인 방어전략으로 제기된 것에 비해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은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변화에 대한 인식('통합국가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견해는 이의 대표적 논리이다(Sassoon, 1982:144-45). 특히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람시를 과거 다른 마르크시스트들의 일체의 '도구화' 주장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람시에게 있어서 그의 독창성을 대변해주는 해게모니는 동맹체

급의 계급적 요구들이 기본계급의 그것으로 접합되는 순수한 계급간의 도구적 동맹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도구적 동맹에서는 각 집단이 동맹내에서 각각의 이데올로기 뿐만아니라 그 개별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Mouffe, 1979:100).

세째, 마르크스의 경제주의적 해석(특히, K. Kautsky)을 비판하고 정치의 독자성과 이론 및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능동적 행위와 조직(당),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하고 조악한 진화론적 붕괴론이나 기계적 결정론·낙관론을 극복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치적인 차원의 논의에 치우쳐 헤닌과 그람시가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그람시의 ‘실천철학’과 헤닌의『유물론과 경험비판론』——점을 간과하고 있다(Adamson, 1980:16).

위와 같은 지적들은 헤게모니·역사적 블력·실천철학과 같은 그람시의 핵심개념들이 헤닌의 실천적 문제의식(각각 대응하는 것으로서 혁명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하의 노농동맹, 연합전선전략, 실천의 중요성)을 수용하는 가운데서 헤닌과는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정한 변형——확장, 수정, 일탈——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중 그람시 스스로도 주요하게 생각했던 러시아와 서구의 차이점은 이러한 여러 지적들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것으로 보인다.⁽²⁾ 사회성격이나 국가의 구조, (특히 그람시의 개념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2) 특히 사회주의를 향한 이탈리아식의 이행모델로 이론바 ‘구조개혁론’을 내세운 톨리아티(P. Togliatti)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이 헤닌의 소비에트 모델(프롤레타리아독재)에 ‘다양성’의 길을 열었으며, 그 계기가 러시아와 서구의 차이, 또 러시아혁명 당시와 2차대전 이후의 시기적 이탈리아와의 시기적 조건의 차이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톨리아티와 전후 이탈리아 공산당의 캐릭터에 관해서는 최장집(1989)과 이미숙(1991)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차이점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한 그람시의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많은 연구자들은『옥중수고』에서의 국가주의 비판(Statolatry)(SPN 268-269)을 이 부분과 연관시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서 그람시가 비판적이었다고 주장한다(Adamson, 1980:313, Simon, 1982:164). 그러나 그람시는 “자율적인 국가생활로 상승하기 이전에 스스로 독립된 문화적·도덕적 발전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은 사회집단의 경우에는 국가승배의 시기가 불가피하며 실제로 적합한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의 ‘국가주의’는 ‘국가생활’의 정상적인 형태와 다름없으며, 또는 적어도 자율적인 국가생활과 ‘시민사회’의 창출을 위한 입문이다.”(SPN 268)라고 말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독재 일반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러시아의 소비에트모델을 강력하게 긍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발달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혁명전략과 경로에서 그람시와 레닌은 현격한 차이를 지니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가장 큰 대조는 그람시의 진지전(War of Position)과 레닌의 기동전(War of Movement)이고 그람시의 문화·이데올로기 투쟁에 대한 주목이 레닌을 포함한 기존의 전통적 마르크시즘과 대립되는 양상으로 해석됨으로써 이미 테제화되어 있는 레닌의 길과 분리된다. 진지전의 본질적인 합의가 ‘결별’ 속에 있다는 주장은 따라서 그간의 그람시 이해의 (적어도 영어권 내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권력의 장악이 지니는 의미와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과 건설 문제에서의 차이점(이내영, 1986:32)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짚어진 것이다. 이 견해는 레닌이 권력의 장악에 목표를 두고 이것을 위해 조직적 수단에 관심을 가졌으나 그람시의 경우 부르주아 지배의 폐지는 새로운 인간형·문화의 형성, 시민사회 내에서의 혜게모니의 ‘역전’이 전제되어야 했고 권력장악은 이것의 궁극적 귀결이었다는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람시의 진지전은 혁명 이전에 종속적 계급의 지적·도덕적 또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우위의 확립이 가능하며 또 그것이 권력을 쥐득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 중의 하나(SPN 57-58)⁽³⁾였던 반면 레닌의 경우에 혜게모니 우위는 국가권력 장악 이후의 후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즉 ① 문화 자체가 수단적인 의미를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사회가 미약했던 러시아 상황과 ② 문화에 대한 레닌의 고민이 주로 혁명 이후의 사회주의 건설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은 각자가 처한 상황적인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채 ‘자구적으로’ 비교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한 혁명조직의 교두보로서의 정당문제에서의 차이점 또한 이같은 반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차이를 주목하는 견해들은 그람시의 정당이론이 지니는 독창성을 두가지 면에서 레닌의 정당관과 대비시킨다. ① 레닌의 정당이 권력의 장악이라는 정치적 역할을 보다 우선된 목표로 하는데 비해 그람시는 정당의 정치적 역할 뿐만아니라 교육적·이데올로기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SPN 132-133). ② 레닌의 정당이 철저하

(3) 특히 최장집(1985:53)은 이 점을 그람시 사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테제로 보고 있다.

게 전위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지도와 체계적 규율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를 갖는데 비해 그람시는 정당이 엘리트의 지도와 대중의 참여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Carnoy, 1984:102, Femia, 1981:151-157). 그러나 그람시와 레닌 모두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주장해왔고 레닌의 조직관이 그 당시 짜리즘하의 러시아 정치상황과는 관계 없이 단순한 음모이론과 전위당 이론으로 평화될 수 없다고 한다면(또 이 이론이 그대로 서구사회에 도입되어야 할 당위성으로 주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대중의 지지를 동원해내지 못한 체워로부터의 수동혁명에 그쳤던 이탈리아 리소르지멘토의 한계와 강력한 시민사회내의 참호를 보다 심각하게 보았던 그람시의 레닌과 다른 강조점으로 볼 수 있다.⁽⁴⁾

그람시의 윤리적-정치적 통합국가와 민주주의 확장 개념, 국가의 성격 변화와 대중조직·정치의 위상이 그간 서구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해왔던 레닌적인 정치인식에 대해 새로운 시사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임영일, 1985:334)는 이 이전된 강조점을 보다 주요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레닌의 정치인식 이면에 놓인 전제가 정치를 곧 국가체제(기구)와 강제력으로 환원하면서 그 환원의 과정마저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반면에 그람시는 확장된 국가기능과 복합적인 혜게모니의 장을 그 매개지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레닌에게 있어서의 부르주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와의 관계가 단순히 의회제 정치체제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문제로 이원화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람시는 이를 혜게모니의 문제로 끌어들여 국가권력의 변혁 이전의 정치적 세력관계의 균형변화의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정치의 영역을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장점을 지니

(4) 추후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라클라우와 무페의 영향을 받아 그람시를 영국적 상황에 적용한 시몬(R. Simon) 또한 당시에 관한 한 그람시와 레닌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Simon, 1982:169). 그러나 그는 이러한 당시와 그람시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고가 레닌의 '연장선'에 그칠 뿐 그람시의 또다른 개념들——혜게모니, 시민사회, 진지전——과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회안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의 일부(최장집, 1985:55, 김성국, 1991:234)도 그람시의 당시 레닌의 '전위당' 이론과는 다르다는 합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은 그람시가 열거한 정당의 혜게모니적 조건들(SPN 152-4)을 들면서 대중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대중정당이 레닌의 정당관과는 대칭적이며 이러한 정당관이 오히려 혜게모니에 대한 근본전제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보면서 시몬과는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람시와 레닌의 당개념이 지니는 정치적 매개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는 글로는 B. de Giovanni(1979)를 참조할 수 있다.

게 된다.

이와같은 이론의 차이와 더불어 『옥중수고』를 집필한 시기에 그람시가 접할 수 있었던 레닌의 저서는 한정된 것이었다는 사실과 실제 그람시가 레닌과 맺어왔던 직접·간접적인 관계를 들어 그람시 내의 레닌을 크지 않게 보려는 견해 또한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는 그람시를 세밀히 추적하면서 얻게 된 결론이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1921년 초엽부터 1922년 말엽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공산당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논쟁에서, 그 때마다 그람시는 공식적으로 보르디가를 지원하였고 그래서 레닌의 견해와는 대립되었다는 점이다.”(Adamson, 1980:104)

이와같은 주장들로 미루어 볼 때 그람시의 이론이 레닌주의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형성되었다는 해석은 그 타당성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그람시는 레닌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고 또 다를 수 밖에 없는 조건적 측면에 있었다. 레닌의 실천적·이론적 중심이 ‘러시아’였으며 그의 ‘전략적’ 이론의 상당 부분이 이 특수성에 내재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닌의 실천과정과 그 선구적 결과에 일정한 보편성이 있었음은 그람시의 러시아혁명론에 비추어 보아서도 일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그람시와 레닌의 특수성의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이 보편성의 문제를(problematic)을 보다 넓게 확충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필요는 레닌이나 그람시 실천의 공통된 전거로서 마르크스의 문제를 각각의 구체적 현실과 실천전략 속에 위치시키고 엄격한 차이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난 후 다시 재결합시킴으로써 완성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만 레닌이나 그람시 모두 역설해왔던 올바른 이론의 준거는 확보되며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있다.⁽⁵⁾

(5) 그람시는 이론적 진리의 보편성 여부를 다음과 같은 질문 속에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그 이론적 진리가 처음에 발견되었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의 구체적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있어 촉매제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람시에게 이론적 진리의 생산력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다.) 둘째, 그 이론적 진리가 구체적 현실에 대해 더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지만 그러한 기능이, 이론이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마치 그 현실이 처음부터 그 이론의 표현에 불과했을 정도로)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그람시는 이론의 구체적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SPN 201).

레닌과는 다른 현실의 지형으로 인해 그람시는 기존의 마르크시즘의 강조점을 바꾸게 된다. 즉 그람시는 구체적 현실(곧 시민사회의 ‘참호’)에서 제기된 지적·도덕적 측면과 실천의 위상에 대한 필요 때문에 크로체(Croce)와 쏘렐(Sorel)을 주목했고, 후기의 그가 관념론(크로체)과 유물론(경제주의)으로 재분해된 마르크스주의의 제조류를 비판하고 새로운 종합을 마르크스와 레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⁶⁾ (김학노, 1985:169)은 바로 그람시가 위와 같은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발로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람시가 이론적 진리에 대해 던진 질문(주 5)과 그 자신의 도정 특히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영향력에 대한 주목은 레닌의 유물론, 정치분석, 혁명전략과 외형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문제틀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궤적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비교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그람시의 도정보다는 분석의 결과에 치우침으로써 결합의 과정이 내재되지 못한, 평면적인 ‘이해를 위한’ 차이점의 발견에 불과했다는 필자의 판단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레닌의 문제틀이 이후의 스탈린주의에 의해 ‘오염’되면서 스탈린에 대한 반감이 레닌으로 연장되었고 이 여파가 그람시의 차별성 부각으로 옮겨진 서구마르크스주의의 발달사 또한 이 ‘이해를 위한’ 차별성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그람시와 레닌의 관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 이해는 이 방법의 과정에 있고 그 차이 또한 이 과정에 대한 검토에서 나와야 한다. 이후에 살펴 볼 보비오의 그람시 이해가 지닌 그람시의 독자성이 사설상 이 과정을 무시

(6) 그람시는 관념론적 마르크스주의의 대표로 크로체를 들고 크로체가 관념론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흡수하려는 것은 전통적 문화의 해체모니가 붕괴됨에 따라 점점 더 융성해지는 마르크스주의를 전통적 문화의 시녀로 포섭하려는 부르조아계급의 반동적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SPN 370, 462). 또 한편으로 그람시는 『옥중수고』의 도처에서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가 부르조아계급 보다 훨씬 열세에 있던 하위계급에게 기계론적 결정론과 숙명론의 신념을 불어넣어서 하위계급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유물론에 내재한 기계론적 결정론과 숙명론이 대중의 수동성과 자기만족의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호프만은 초기의 그람시가 크로체의 철학적 영향력을 정치분석에 옮겨놓은 것으로 보고(이러한 관점에서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평가로 SPW I의 「자본론에 반하는 혁명」을 들고 있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의 크로체에 대한 비판이 마르크스가 혜택을 뛰어넘었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P. Hoffman, 1984:61-62). 특히 그람시가 레닌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이론의 본질 회복이며,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해설 곧 과학에서 행동으로, 이론적·도식적 가능성에서 역사적 효율성으로의 전환이다(Paggi, 1984:74-75 참조).

한 크로체적 그람시에 있고, 이데올로기의 반환원론적 이해를 그람시를 통해 끌어내고 있는 무페 역시 정치적 지향에서는 보비오와 그리 멀지 않다고 사료된다.

III. 그람시의 이데올로기주의(Ideologism)해석에 대한 비판

1. 그람시의 이데올로기주의적 해석

그람시의 사상을 가장 극단적으로——전통적 마르크시즘 내에서 그리고 레닌의 실천경험파의 대비에서 가장 일탈적인 모습으로——이해하고 있는 형태는 보비오(N. Bobbio, 1979)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비오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이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의 도식에 역전(inversion)을 가져온 획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람시의 시민사회는 ①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경제구조에 대한 우위, ② 시민사회(동의)의 정치사회(힘, 강제)에 대한 우위를 의미한다(1979:36). 그가 자신의 주장의 가장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인용을 들어보자.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는 순수한 경제적인 계기(또는 자의식적-열정적)로부터 윤리적-정치적인 계기로의 이행을 지적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구조에서 상부구조로의 승화(superior elaboration)이다. 이것은 또한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 그리고 ‘필연’에서 ‘자유’로의 이행이다.”(SPN 366)

따라서 보비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관계의 영역이나 정치사회의 영역이 아닌 ‘주관’과 ‘자유’에 의해 지배되는 시민사회의 영역이며 시민사회는 이데올로기적·문화적 복합체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혁명투쟁의 직접적 계기는 무장국가와의 투쟁이 아닌 이데올로기 지배의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에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은 잘 알려진 많은 그람시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텍시오(J. Texier), 무페, 홀, 아담슨, 카노이(M. Carnoy), 호프만 등은 각자 자신이 지닌 상이한 그람시 이해의 틀 내에서 보비오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텍시오는 보비오의 역전 개념이 그람시의 풍부성을 『옥중수고』에 인용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서문』의 두가지 원리로

축소시킨 것으로 보고 『옥중수고』의 다른 많은 전거들을 들어 보비오를 반박하고 있다.⁽⁷⁾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홀등 역시 보비오가 그람시의 분석적 시민사회 개념을 오용함으로써 그람시를 투카치적 역사주의의 주물안으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Hall, et al., 1979:73). 무페 또한 보비오의 주장이 해계모니와 경제의 접합을 명확히 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지나친 ‘상부구조적’ 해석을 낳게 되었다고 비판한다(Mouffe, 1979:101). 아담슨은 보비오의 그와 같은 이해가 그람시 초기의 사상적 부채 특히 헤겔-크로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보비오의 견해를 전체적 그람시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비오가 크로체나 그람시 모두……헤겔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고 제시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주장인 것 같다.……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헤겔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상부구조를 ‘일차적’인 것으로 하고 (하부)구조를 부차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의 ‘일차성’을 뒤집게 되었다고 보비오가 주장한 것은 지나친 견해가 아닐까 짚고 넘어가야 한다.……그람시가 상부구조의 ‘일차성’을 단언한 단 하나의 구절도 보비오가 지적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Adamson, 1980:304-305).

보비오를 비판하는 논자들에게 그람시가 시민사회 개념을 ① 한 사회집단이 전체사회에 대하여 갖는 정치적·문화적 해계모니와 ② 경제행위의 양식 등의 두 가지 상이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SPN 208-209)는 점, 그리하여 해계모니 개념 자체에 경제적 성격이 포함되므로 이들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동일한 시민사회의 양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게 보여진다. 홀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다.

(7) 보비오와 적접적인 논쟁관계에 있었던 텍시오는 특히 마르크스의 개념과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일정한 일탈로 이해되고 있는)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장이 되는 상부구조적인 활동의 형식은 이데올로기적이지만 그 내용은 경제적인 것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은 많은 그람시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그람시의 시민사회를 상부구조에 국한시켜 보는 견해는 특히 Larraín(1979), 그람시가 국가와 시민사회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Anderson(1977), Larraín(1979), MaLellan(1986) 등이며 이를 그람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보는 견해는 일치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Texier(1979), Adamson(1980), 임영일(1986), 뒤에서 살펴볼 Forgacs(1989)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텍시오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람시의 저작에 있어서 구조 즉 ‘경제세계’는 항상 존재한다. 구조의 운동은 상부구조에서의 발전으로 매개(parameter)되지만 그것은 유일하게 마지막 층위에 있어서의 역사의 주인(主因)이다”(Hall, et al., 1979:46).

홀은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이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양 측면을 포괄하는 매개영역이며 흔히 ‘사적’이라고 통칭되는 유기체들—정치적 정당이나 언론과 같은 조직체 뿐만 아닌 이데올로기적이고 경제적인 기능이 조합된 가족 등을 모두 포괄—의 총합으로 간주하고, 시대적 한계로 인해 헤겔과 마르크스의 대중조직 경험의 일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람시의 판단⁽⁸⁾을 주목하고 있다.

보비오의 두번째 역전, 국가(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구분과 어느 한쪽의 우위에 관해서도 이들의 비판은 계속된다. 사쑨(A. Sassoon)은 국가나 교회 같은 제도적 계급지배의 도구들이 동시에 두 계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 서 이들 간의 분리를 배제하고 있으며(Sassoon, 1982:112), 텍시오 또한 그 람시의 이론틀 내에서 두 계기를 구분하는 것의 유용성이나 필요를 인정하지만 분리불가능하다는 대전체 아래에서의 방법론적 구분만을 인정하고 있다(Texier, 1979:51). 호프만은 이 성격이 ‘단순한 방법론’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Hoffman, 1984:65). 특히 그람시의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강제력의 갑옷에 의해 보호되는 혜계모니’, SPN 263)는 이를 비판의 주요 전거가 된다.

이와같은 보비오에 대한 비판의 톤과 성격은 각각의 상이한 이론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필연적 상응(nonnecessary correspondence; 제설의 표현)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주의’ 역시 앞에서도 잠깐 지적한 대로 보비오의 이론틀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데올로기 반환원주의는 궁극적으로 보비오의 위와 같은 해석에 상당히 근접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왕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초기)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8) “그(헤겔)의 결사체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사이에서 어중간한, 모호하고도 초보적인 것일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점은 당시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이다. 즉 당시에는 조직체의 완전한 예라고는 오직 하나, 즉 조합(“corporative”) (경제에 직접적으로 이식된 정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마르크스도 헤겔의 경험에 비해 월등한 (혹은 적어도 아주 월등한) 경험을 지닐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저널리즘 활동과 선동활동의 데택으로 대중에 대한 감각을 지닐 수는 있었다. 마르크스의 조직개념은 동업조합 조직, 샤크뱅글러법, 소규모 비밀을모 집단, 저널리스트 조직 등의 요소 사이에서 얹혀 있었다”(SPN: 259).

무페의 논의를 들어보자.

무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분석에 있어 경제주의로부터 반환원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환의 세가지 국면⁽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Mouffe, 1979:105-114, 요약은 Jessop, 1982:255-256 참조).

첫째의 국면은 모든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주체들이 본질적으로는 계급주체들이라는 주장에 기반하여 이데올로기를 토대의 부수현상(epiphenomenalism)으로 보는 제2인터내셔널류의 순수하고 고전적인 형태의 경제주의이다. 두번째 국면은 정치적 차원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 효용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위의 부수현상주의와는 결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천들의 근원을 계급주체의 경제적 위치에 근거한 계급의식의 진화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제주의적인 계급환원론이다 (루카치(G. Lukacs)나 코르쉬(K. Korsh)). 세번째는 이와같은 선형론적, 발생론적 주체라는 계급환원주의 견해와 결별하여 이데올로기 실천을 주체들——경제적 제관계의 수준에서 미리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데올로기들 안에서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을 통해서 일단 구성되더라도 계급소속감이 필연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닌 주체들——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¹⁰⁾

무페는 그람시가 정치행위의 주체를 (주어져 있는) 사회계급이 아닌 (이데올로기) 실천을 통해 창출된 혜게모니체계의 복합적 ‘집합의지’로 본다는 측면에서 위의 세번째 국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무페의 이러한 그람시 이해는 그람시의 불충분함과 모호성에 알뛰세르의 원칙——① 모순의 증증

(9) 그녀가 전제하는 환원주의 이데올로기 영역의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주체는 계급주체이다. ② 사회계급은 그들 자신의 범례적인 이데올로기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③ 모든 이데올로기 요소는 필연적으로 계급에 귀속된다.

(10) 무페는 이러한 전환의 국면들이 레닌주의의 유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레닌주의는 세가지의 발전적 출발점을 마련하게 되는데, ① 이전 시대에도 있었던 자의적 주관주의 ② 의식의 우월성과 정치적 계기의 자율성을 객관적인 계급논리와 병립시키려는 노력 : 루카치 ③ 레닌의 정치적 실천으로부터 모든 이론적 중요성을 추출하고자 하는 형태 : 후기의 그람시이다. 무페는 세째의 영역을 반경제주의적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태도가 레닌주의의 잠재적 측면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Mouffe, 1979:92-93). 이와같이 무페는 레닌의 실천이 마르크스의 ‘생산력주의’에 대한 일정한 ‘극복’이며, 따라서 레닌이 ‘생산력주의’의 본질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포스트마르크스주의론에 이르어서 더욱 선명하게 표현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내에서 레닌의 지위를 판단하는 문제와 마르크스사상 내에서 생산력주의와 그 목적론, 본질주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적 결정(반환원성)과 최종총위에서의 경제에 의한 결정 ② 주체가 의식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호명(interpellation)메카니즘의 생산물——에서 추출한 반환원주의 체계를 부여해 새롭게 ‘읽은’ 결과이다. 따라서 무폐의 그람시 이해는 무엇보다도 알튀세르라는 ‘필터’에 의존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그람시의 혜개모니 문제들은 이데올로기의 상대적인 자율성과 최종총위에서의 경제에 의한 결정이 접합될 수 있는 보다 넓은 밀그림(outline)이며 경제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적유물론에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점에서 그람시의 ‘기본계급’은 알튀세르의 ‘최종총위’와 만나게 된다.

“사실 그람시의 혜개모니 개념에 내재하는 이데올로기 개념은 실질적인 자율성을 목표로 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실천이 변형을 하려하는 이데올로기 요소들은 필연적인 계급귀속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이해관계들이 이데올로기 표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자율성이 최종총위에서의 경제 결정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 이데올로기 요소들을 접합하는 혜개모니 원칙들이 항상 기본계급들에 의해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Mouffe, 1979:119).

이와같은 무폐의 ‘그람시 이데올로기 개념’을 제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Jessop, 1982:256-257).

① 그람시는 모든 정치적 세력들이 본질적으로 계급주체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 정치적 세력들은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을 통해서 계급상호간의(interclass) 또는 다계급적인 집합적 의지로 구성된다. ② 그람시는 다양한 계급들에 범례적인(paradigmatic) 방식으로 상용하는 각각의 순수한 계급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견해를 거부하고 그 대신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의 다원적인 전체가 존재하며 다양한 계급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계급이데올로기들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③ 그람시는 필연적인 계급적 합의들을 갖고 있지 않은 ‘민족-민중적’인 것들의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 요소들이 있다고 본다. 그람시는 이러한 ‘민족-민중적’인 요소들을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의 장으로 다루고 있다. 즉 두 기본계급은 자기들의 계급담화가 국민들의 능동적 동의를 받는 ‘민중 종교’ 또는 민족적 이익의 유기적 표현으로 될 수 있

도록 ‘민족-민중적’ 요소들을 그들 자신의 계급담화 안에 결합시키려고 경쟁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담당자들은 지식인이며 이데올로기 투쟁은 전체 혜계모니 기구들을 통해서 매개된다. ④ 이러한 정치적·지적·도덕적 지도력을 통해서 창출된 공통된 세계관의 계급적 통일성은 경제적 수준에서 기본계급들에 의해 수행되는 핵심적 역할에 그 실현 여부가 달려있는 가치체계의 주변에 그 세계관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바로 이와같은 가치체계가 공통된 세계관에 침투해서 그것에 독특한 계급적 성격을 부여하는 ‘혜계모니 원리’를 구성한다.

홀 역시 무페의 주장과 연속선상에 있다.⁽¹¹⁾ 홀은 ‘필연적이지 않은 계급귀속’(the non-necessary class belongingness)을 통해 반환원론적 이데올로기 개념을 주장하고,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동시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 이데올로기 투쟁 개념을 정립함으로써(S. Hall, et al., 1977:48, S. Hall, 1980:79-83 등 참조) ‘그람시에서 라클라우로’를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이론 역시 고전적 반영이론의 재검토에서 나온 것⁽¹²⁾으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통일’도 경제구조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따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새로운(문화론적) 접근에서는 계급이란 단지, 모든 수준의 사회적 실천(따라서 이데올로기 투쟁도 포함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의 복합체(the complex result)일 뿐이다”(Hall, 1980:83쪽).⁽¹³⁾ 무페에

(11) 무페는 홀 등의 그람시 이해(Hall, et al., 1977)가 자신의 의도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Mouffe, 1984:108).

(12) 홀의 이 재검토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은 그의 또 다른 글, Hall(1983B)을 참조하라.

(13) 홀의 이러한 관점은 알튀세르(L. Althusser)의 영향 내에서 마르크스의 『브뤼메르 18일』을 반환원론적 유물론으로 읽어낸 결과이다. 그는 결합되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생산양식(이 때문에 순수형태의 생산양식이 순수한 계급을 산출해내려는 경향은 차단되거나 중충적으로 결정된다)과 더불어 이를 중충적으로 결정하는 효과를 지닌(즉 토대의 단순한 ‘결실’이 아닌) 상부구조적 관계가 비동질적인 계급개념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계급은 이데올로기 수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무대에서도 결코 통합세력으로 등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허스트(Hirst, 1976)의 필연적 불일치(necessary non-correspondence) 개념에 이르러서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상대적 자율성’(토대와 상부구조의 복합적 통일을 목표한)이 아닌 ‘자율성’은 마르크스주의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Hall, 1977:54-59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의 ‘라클라우로!’의 주장은 토대의 ‘끈’이 매우 약화된 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환원 영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상대적 자율성 개념이 궁극적으로 반영이론의 복잡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허스트의 주장(1976)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주체를 생산하는 실천이며, 이 실천을 통해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생성과 통일이 가능하며 이 과정은 낡은 이데올로기 요소들이 새로운 핵심이나 원칙을 중심으로 재배열되고 결합되는 변형의 과정을 말한다. 이와같은 훌의 주장 또한 그람시가 사용한 ‘자취’(trace)라는 개념의 ‘경향적인’ 계급결합에 기초하고 있다.

그람시의 해계모니 개념이 지니고 있는 함축을 위와 같은 반환원주의적 개념으로 전전시키고 있는 무페, 훌의 연구는 기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무페의 경우이지만) 나중의 ‘언어중심주의’(logocentrism)나 ‘텍스트 환원주의’로 비판받게 되는(Jessop, 1982:259) 담화이론(Laclau & Mouffe, 1985)에서 보다 훨씬 그람시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섭이 지적하고 있는 무페의 ‘혼란’⁽¹⁴⁾은 그람시에 있어서 항상 존재하는 경제세계·물질적 힘의 관계를 반환원주의 문제들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⁵⁾ 여기에서 그녀의 문제의식은 비로소 선명해진다. 그녀가 보기에 여하튼 계급모순의 단일한 응축과정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사회모순이 존재하고 이 모순의 극복계기는 계급적 문제제기로서가 아닌 보다 넓은 형태(‘민중적-민족적’)로 나타나야 하며, 그 점점으로서의 해계모니는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환원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면 이제는 ‘총체’ 내에서 상호간에 연결되는 다양한 메카니즘과 ‘접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¹⁶⁾

(14)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무페의 반환원론적 이데올로기주의에 대해 제섭은 여전히 계급환원주의의 중요한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초기의 무페가 반환원주의적 개념과 계급환원주의적 개념들 사이에서 불안정한 채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Jessop, 1982:258-259).

((15) 이점은 무페가 알뮈세르의 비판자들(특히 허스트(1976))이 경제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곧 이데올로기 실천들에 전적인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적유물론을 포기하는 방법에 대응하여 그람시의 해계모니 문제들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사적유물론의 기본 교리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유보조항을 달고 있듯이 기본 계급 또는 최종 층위의 결정이 이데올로기의 자율성을 얼마나 만큼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6) 여기에서 사용된 접합(articulation)은 마르크스의 Gliederung(독일어의 사지(四肢)인 Glied에서 유래된 것으로 신체의 사지를 사이의 구조화된 연결성을 뜻하는 해부학적 용어)이란 용어를 알뮈세르가 서로 다른 층위들 또는 수준들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 용법(다른 번역자들은 ‘조직’ 또는 ‘유기적 관련’으로 번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현실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총체성과 그 결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해부학적 비유——정합, 부정합(dislocation), 전위(displacement), 탈구(disarticulation)——로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사실상 혼란으로 귀결된) 문제의식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극단화의 오류를 지니게 된다. 즉 그녀는 보비오의 역전 개념을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역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설을 빚고 있는 것이다.

우선 ①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경제세계 ('상대적으로 불변적인' 경제적 계급구성체들과 그들의 모든 내적 연관' (SPN 163))의 결정(decisive) 기능에 기초한다. 사회 내의 어느 집단이든지 헤게모니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는 경제적-조합주의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희생은 본질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SPN 161). 이 본질과 경제적-조합주의적 희생, 그리고 구체적 국면에 따른 힘의 세력관계 (정치적 힘의 관계, 정치적 군사력 까지를 포함한 군사적 힘의 관계, SPN 180-185 참조)가 복합되면서 무페가 말하는 접합의 원칙, 곧 헤게모니 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던 그람시의 동태적인 이행의 틀은 바로 이러한 단선적이 아닌 보다 복합적인 힘의 관계의 포착과 그 기초를 형성하는 경제세계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항상 존재하는 경제세계'가 존재만으로 그치고 그 결정의 기능도 한 부문의 것으로 그치거나 오히려 종속적인 역할이라면 그것은 그람시의 다음과 같은 설명과는 전혀 무관하다.

"단일 어떤 유형의 국가라도 경제적·조합주의적인 초기성을 거쳐나갈 수 밖에 없다면, 새로운 유형의 국가를 건설한 새로운 사회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의 내용은 주로 경제적 질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추론되어진다. 여기에는 구조의 재조직, 인간과 경제세계 또는 생산세계 사이의 실제적 관계의 재조직이 중심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상부구조적 요소들은 그 수에 있어서도 적을 수 밖에 없고 그것도 일종의 예측이나 투쟁으

구성되어 있다(Foster-Carter, 1984:217-221). 참고로 이와 유사한 홀의 접합 개념 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의 법칙이나 사실과 같이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은 연결 또는 결합을 의미하며 ② 특정한 존재조건을 필요로 하고, ③ 일정한 과정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며 '항구적' 인 것이 아닌 끊임없이 개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④ 다양한 관행들 (practices) 사이의 접합은 동일한 것이 된다거나 한 쪽으로 용해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결정 및 존재조건을 유지 한다. 그러나 ⑤ 일단 접합이 이루어지면 두 관행은 '궁극적 동일성'으로서가 아니라 '결합 내의 개별' (distinctions within a unity)로서 기능할 수 있다(Hall, 1979:212, 특히 1985:113).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접합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결합 속의 개별' 성을 주장하는 것 못지 않게 접합의 형태와 그 상이성을 만들어내는 현실의 동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계획된’ 요소들이란 거의 없을 것이다.”(SPN 263)

② 그간 많은 이데올로기론자들에 있어서 필연적인 계급구속이 불가피한 원칙이 되어 왔던 탓은 그들이 계급구조를 선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기 보다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점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급투쟁을 야기하는 두 기본계급의 역학관계 속에 무폐가 말한 비계급적 이데올로기 요소들 또한 편입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폐 또한 사적유물론의 틀 내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벼리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계급적’ 요소 자체의 존재 또는 비필연적, 우연적(*contingent*)인 결정성이 도식적 계급환원론과의 단절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무폐의 말대로 생산관계의 수준에서 기본계급이 담당하는 중심 역할에 그 실현이 달려있는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그 기본계급을 중심으로 동맹집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일을 도모하는 혜게모니 원리와는 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 또한 ‘동의’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시민사회 내의 투쟁에 보다 큰 하중을 두고 있는 보비오의 생각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셈이 되고만다. 다음과 같은 그람시의 강조는 무폐 자신이 빠져있는 이데올로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역사·정치적 분석에서 흔히 있는 오류는 유기적인 것과 국면적인 것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보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이럴 때에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작용하고 있을 뿐인 원인을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오직 직접적인 원인만이 유효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경제주의’의 과잉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주의’의 과잉이다.”(SPN 181)

③ 무폐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분리—재접합으로서의 이데올로기투쟁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주체의 설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즉 그녀는 진지전이 기본계급의 혜게모니 원칙을 중심으로 접합시킨 이데올로기 체제 내에 비계급적 이데올로기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들을 전유하려는(*appropriate*) 이데올로기의 투쟁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이 투쟁은 구체적 행동노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람시가 정확히 연구해야 할 필요를 역설한 ‘집단행동노선’(SPN 95)은 경제적 힘이 곧바로 정치적 조직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물론 아니었기 때문이다(Paggi, 1984:37), 구체적 국면(*conjunctual*)변동 속에서 객관적 전제를 주관적 의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고도로 상향된 동질

성과 자기의식을 갖춘 조직이 없이는 역사변혁의 계기가 되는 ‘보편적’ 지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 것이기도 하다. 그람시가 모든 상황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언급했던 “즉각 전장(戰場)으로 투입될 수 있는, 항구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세력”(SPN 185) 건설에 있어 이데올로기투쟁이 어떻게 정초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결여 또는 상대적 약화는 그람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데올로기 기능—대중의 조직과 의식화, 곧 접착제(cementing) 기능—논의 자체의 구심점(‘누가 어떻게 어디에서’)을 잃어버릴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무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계급’론이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④ 무페의 반환원론적 이데올로기론에서 종추를 이루고 있는 그람시의 민족적-민중적(national-popular)개념⁽¹⁷⁾의 중요성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조합 주의적 이익을 버리고 헤게모니 단계 또는 보편의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회득해야 하는 단계라는 있다.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리소르지멘토에서 대중의 동원에 실패한 부르주아 계급 이래 오늘날 ‘민족적’ 계급은 오직 프롤레타리아계급이라는 점을 확인하고(L. Ordine Nuovo, 1919~1920, Turin 1975:278, Forcags(ed.), 1988:426에서 재인용) 있다.⁽¹⁸⁾ 그렇다고 한다면 그

(17) 무페와 시몬 등의 이러한 주장은 라클라우(1977)를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라클라우 역시 무페의 민주주의적 호명(democratic interpellation)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우선 라클라우는 피오트(J. M. Piotte)의 주장을 따라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① 국민적 대중(popular mass)을 회득할 수 있는 관계의 일 유형, ② 당의 헤게모니(‘빈농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지배’와 같은)를 조직하는 계급집합(class articulation) 등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를 소홀히 볼때 그람시를 ‘민주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populist)로 보기 쉽고, 후자를 강조하는 데닌식 그람시가 되는 경우 그람시의 독창적인 사고를 폄하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비계급적 속성에 관한 것과 같은 그람시 사상의 제반 이론적 합축은 연구되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aclau, 1977:141-142, 이외에도 라클라우는 틀리아티 이래의 이탈리아 공산주의가 발전시킨 여러 주제들(대중정당, 진보적 민주주의, 노동자계급의 민족적 임무 등)이 원래의 헤게모니 개념을 꼭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 논쟁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겸토가 필요하며 당연히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헤게모니 개념의 이중적 합의는 후자에 기초하여(물적 전제) 전자가 마련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식’ 그람시 이해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18) 그리고 이는 다시 『육중수고』에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와 관련하여 재규정되고 있다. “이탈리아 민중(people)은 사례동포주의의 현대적 형태(말하자면 사회주의 국제주의)에서 가장 커다란 ‘민족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 뿐

람시에게 있어 민족-민중의 영역은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적극적으로 포섭해냄으로써 자신의 정치역량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하는 투쟁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무페가 경계하고 있는 경제-조합주의적 노동운동과 좌익분파주의의 폐해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배타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마르크시즘의 전통 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환원되지 않는다는 명제에 의해 계급투쟁과 분리된 이데올로기투쟁의 ‘절대적’ 자율성이 부여될 수는 없다. 무페도 언급하고 있는 ‘결정적인 승리’는 이데올로기적 용해가 주요한 매개인 보다 고도한 동질적이고 응집적인 사회적 블럭의 형성 (SPN 204-205)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데올로기투쟁 역시 이 블럭의 구심체 곧 계급모순의 담지자에 의해서 중요하게 배치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페의 주장대로 이데올로기 투쟁은 결코 진지전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그 진지전의 형태 또한 무계급적 약진이 아니다. 민중-민족의 개념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명실상부한 민족-민중적 구심점으로 가꾸어내기 위한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¹⁹⁾ 역할과 동떨어져서 이해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⑤ 무페의 그람시 이해는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알튀세르라는 필터에 의존해 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알튀세르가 그람시의 반환원 문제틀을 이어받았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알튀세르는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동일한 관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무페는 알튀세르에게서 반환원을 시사받고 이를 그람시에게 적용, ‘체계’를 부여하는 정후적 독해에서 그람시 역시 반환원주의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람시는 잘알려진 대로 역사적 효율성을 중시한 ‘역사주의자’이며 알튀세르는 이를 통렬

만아니라 빈농 특히 남부의 빈농이”(D. Forgacs & G. Nowell-Smith (ed.), 1985:247).

(19) 그람시의 ‘지식인’은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SPN의 편집자(Q. Hoare & G. Nowell Smith)가 서문에 불인 개관은 가장 탁월하다. “유기적 지식인은 ① 한편으로는 작업조직과 생산에서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에 의해 규정되고, ②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에 초점이 집중되는 ‘지도적인’ 정치적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프롤레타리아가 방어적인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피해 혜택모니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의식적인 책임감을 가질 때이며 그것은 보다 선진적인 부르주아 지식층으로부터 이념과 사람들을 흡수함으로써 보완된다.”(SPN 4-5)

하게 공박한 바 있다. 알튀세르가 영향을 받았다면 이데올로기 부분일 것인 데 이 역시 설명의 체계는 같지 않다. 그람시의 역사주의와 반환원주의, 알튀세르의 구조주의와 반환원주의는 각각의 이론을 내에서 그 정치적 합의 까지를 포함하여 내재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결코 그 결과만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무페의 이러한 관점은 본연의 그람시가 아닌 후기 알튀세주의자로서의 그람시를 ‘만들 수도 있다’ (Forgacs, 1989:83-84).

2. 다시 레닌과 그람시로 : 호프만과 포가치의 문제제기

대부분의 그람시 연구자들이 레닌과 그람시를 일정하게 분리하고 있으며 그 논의의 개연성이 주로 크로체(헤겔)의 영향력에 따른 그람시의 지적·도덕적 지도력의 강조와 연관되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람시의 과정 보다는 결과를 앞세운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고, 이 중 심대한 편향으로서의 보비오와 이에 가까워질 수 있는 무페 등의 이데올로기주의에 대해서는 그람시의 입장 내에서도 일정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레닌과 그람시의 사고 과정과 그 결과 및 실천의 현대적 위상이다. 그리고 이점은 이데올로기와 국가에 대해 불충분한 명제로 그쳤던 마르크스를 보다 정교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내에서 그람시의 ‘동의’를 정초합으로써 마르크스—레닌—그람시를 하나의 맥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호프만(Hoffman:1984)과 무페 등의 반환원주의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로 비약하고 있는 영국에서의 그람시 수용의 편향을 지적하고 그랑시 이해의 원칙적인 개요를 제시하고자 하는 포가치(Forgacs:1989)의 견해를 제시하는 선에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호프만은 그간의 레닌과 그람시의 차별성의 겹증·확대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집단 조직가’, ‘선동자’, ‘선전자’로서 당 신문을 지칭했던 레닌의 경우는 그람시의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기관으로서의 ‘신 질서’(the Ordine Nuovo)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P. Hoffman, 1984:57)

호프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레닌의 헤게모니 개념에 그람시의 경우에 강조

되었던 문화, 지적·도덕적 부문에 대한 주목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럼시 스스로도 토로했듯이 정통마르크시즘에 있어서 헤게모니 개념은 그렇게 협소하게 그리고 도구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SPN 365) 이미 이론적이고 철학적 함축을 지닌 것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프만에게 있어서는 무페의 주장대로 그람시가 ‘새롭고 근본적인 차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람시가 정통 마르크시즘에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석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있다.

또한 호프만은 레닌의 헤게모니가 궁극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의 독재’였으며 따라서 그가 보다 주목한 것은 헤게모니와 독재의 차이가 아닌 독재의 종류 사이의 차이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레닌의 『두 가지 전술』에 그람시의 지적·도덕적 지배력이 혁명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SPN 57-8)과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의 기본 의도가 민주주의혁명을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한 안정적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그람시의 주장과 크게 상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호프만은 그람시의 ‘강제로서의 국가’와 같은 도구적 협소성에 대한 비판이 레닌이 아닌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① 1929년 이후의 코민테른 정책에서 ‘계급에 대한 계급의 적대’(‘class against class’)로 표현된 좌익 분파주의 ② 벨라 쿤이나 보르디가, 1921년의 코민테른에서 규정한 초기 ‘전면전 이론’ ③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이러한 주장을 통해 호프만이 의도했던 것은 레닌과 그람시의 차이점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 그람시의 길을 레닌의 길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레닌을 폭력으로서의 국가→전위집단에 의한 당의 육성→기동전에 의한 국가권력의 전복이라는 도식화된 이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포가치의 영국에서의 그람시 수용⁽²⁰⁾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호프만의 것

(20) 이러한 영국적 그람시 이해와 ① 다른 나라(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의 그람시 연구가 비교, 검토되고, ② 제3세계 특히 혁명론의 전시장이라 부를 만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그람시주의자에 대한 연구가 아울러 진행된다면 현대적

과 연장선상에 있다. 포가치는 영국의 그람시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수성을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지적하는 가운데 나이른(T. Nairn)과 앤더슨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의 경제 주의와의 단절을 주요한 영국적 전통으로 보고 있다. ①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 간의 직접적이고 도구적인 연결에 대한 단절 ② 정치적 지배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강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앤더슨의 그람시 비판(Anderson, 1977)에 대해 포가치는 앤더슨이 그람시의 해게모니와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강조와 더불어 국가의 강제에 대한 그람시의 주목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좌파 사회민주주의의 오류를 재생산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① 앤더슨의 분석은 그람시를 사회민주주의 전략과 동일시한다. 특히 카우츠키의 1914년 이전의 지구전(attrition) 전략과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을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 진지전은 ‘의회적 길’이 아니다. 그리고 제2인터내셔널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들과 관련해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조건들로는 당시 좌익의 패배, 분열, 전시 자본주의의 규제와 파시즘 등을 들 수 있다. ② 앤더슨은 그람시의 국가와 시민사회 등의 개념 재구성이 개념적 실수 또는 본질적 이원론이라고 보면서 그람시를 비판하고 그람시가 해게모니/동의로서의 시민사회가 정상적 조건에서는 지배/강제로서의 국가에 우선한다고 보고 있지만, 그람시는 국가와 해게모니 개념에 있어 뚜렷한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람시가 의회주의 정체의 계급지형에 있어 해게모니의 “정상적” 수행이 힘과 동의의 조합(상보적인 균형을 이루면서)에 의해 특징지워진다고 말한 적이 없었던가? (SPN 80)

또한 포가치는 시몬, 무페와 라클라우, 홀 등의 새로운 그람시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계급본질론('class essentialism')의 거부가 사회주의변혁을 위한 기초로서의 (전통적) 계급이해와 계급동맹론을 부인하였으며, 이 결과로 계급은 단지 대중의 주체를 구성하는 여러 무대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견해가 영국의 그람시 이해의 중심이 되어왔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그람시 이해로 말미암아 영국의 그람시가 이론적·실천적 측면⁽²¹⁾ 모두에서

그람시의 전체상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21)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 각 방면의 ‘민주화’와 민권운동, 지방자치운동, 여성운동, 반핵운동 등의 ‘국민운동’(필자 나름으로 거칠게 나마 정의해 본다면, “일정한 진보적 지향성을 지니면서 계급을 망라하여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취약점을 배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러한 주장은 그람시의 반경제주의적 요소를 일면적으로 극대화시킨 결과이며 그들은 자본주의경제와 그것의 이행에 관한 전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인 요소를 사상하고 문화적·정치적 분석수준만을 과다하게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이 점에서 그들의 분석과 비판이 처방이나 전략의 수준—정치형태나 기관, 경제계획, 사회주의 이행의 전략—으로 옮겨올 때 매우 취약함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넓은 진보적 사회동맹을 제기하고는 있으나 그 정치적 형태나 그에 어울리는 경제개혁 곧 사회주의 이행의 전략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있는 실패작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 이후, 포가치는 ‘다시 그람시로!’를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그람시 이해의 원칙적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그람시 자신의 프롤레타리아 해방모니 개념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 또는 계급분파의 동원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처음의 계기에서는 그 집단의 당면한 요구와 고통에 기초할 수 밖에 없지만 결국은 착취당하는 집단 또는 억압받는 생산자로서의 공통이해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질서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건설이 이루어진다.

② 강한 시민사회의 조건 하에서의 그람시의 이행 개념은 강제로서의 국가를 전복하는 전제조건으로서의 국가권력의 장악을 내포하고 있다. 혁명 후 발전에 대한 그람시의 사고에서 강제적 국가통제의 기간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계획경제의 건설을 위해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들이 경제적 세력들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 생산의 장치를 재조직하고 발전시키며 그리하여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낸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하여 상부구조적 요인은 저 혼자 놔두어도 자생적으로 발전하며 우연하고도 고립적으로 발아하게 된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국가는 이 상부구조적 분야에서도 또한 ‘합리화’, 가속화, 테일러화의 도구인 것이다.”(SPN 263)

③ 그람시의 동맹 개념은 대중정당 자체가 중심 위치를 지니는 것이며 동

는 운동”을 중요시하는 이들 네오 그람시스트들(‘국민정치파’)의 동맹전략에 대한 ‘계급정치파’의 비판은 김수행(1988)을 참조할 수 있다.

맹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진지전과 역사적 블럭은 당과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대중정당은 당과 ‘지적·도덕적 개혁’을 전체화(totalizing)한 개념이다. 이 ‘지적·도덕적 개혁’에서 ‘실천의 철학’에 적합한 사고와 행위의 방법은 민중적 상식, 계급모순의 이론, 그리고 그 모순의 지양과 극복의 기초가 된다.⁽²²⁾

포가치가 늦추지 않고 있는 비판의 고삐는 특히 라클라우와 무페의 정치·문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필연적 상응(non-necessary correspondence) 개념과 라클라우가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 주체성의 물구조적(structureless) 다원성으로의 분해에 이르러 극대화된다.⁽²³⁾ 그는 이러한 그람시 해석들이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에 대한 뚜렷한 이론화도 없이 사회주의 계획과 노동운동을 사라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포가치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위의 세가지 원칙적 수준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전제 하에서 역사와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그는 이 점에서만이 그람시 마르크스주의를 총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상부구조주의자, 문화주의자로 그람시를 편향시켜서는 안된다 는 점이 상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호프만과 포가치의 문제제기가 그람시를 서구의 레닌판으로만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호프만과 포가치의 문제제기 속에는 그간에는 단절되었던(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람시의 마르크스, 레닌과의 관계를 상당하게 복원시키고자 하는 내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람시에 있어서 계급 가치의 복원→국가권력의 장악이 가지는 의미의 확대와 변혁전략의 경로에서 국가권력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환기→동맹의 구심점으로서의 계급과 당에 대한 주목은 레닌적 혁명론의 기본 테제와 상당히 닮아 있다.

물론 그람시의 사상은 레닌의 경험·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람시의 길은 레닌과 분리되어서는 안되는 보편성과 실천 경험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22) 결국 포가치는 그람시를 하나의 (대중)정당, 동맹에 대한 계급지도력, 국가에 대한 정면공격이 배제되지 않은 진지전,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발전의 틀내에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Forgacs, 1989:87).

(23) 이 점은 이 글이 다음의 과제로 삼고 있는 이론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평가이다.

IV. 맷 을 말

그람시 사상에 대한 이해와 원용은 현대에 있어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지배 양식과 힘의 세력관계에 대한 그의 폭넓은 이해가 이전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상부구조 부분에 대한 보다 심대한 함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러시아혁명에서 조차 일반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가장 유리한 국면들이 반드시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에 있어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기존의 구조가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들에 의한 공격에 대항할 수 없는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다”(SPW II, 345).

그람시에 따르면 시민사회 내의 온갖 형태의 규제와 지도·간섭이 증가함에 의해 생산력의 발전이 곧 혁명의 진전으로 이어지는 카우츠키식의 붕괴론적 편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동의에 의해 지배되는 시민사회 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전통과 단절된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의 이데올로기주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여기에 있었다.

필자는 현재 서구의 변혁이론으로서 반환원주의적 그람시가 적극적으로 조명되는 것은 그들의 고민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람시의 서지적 이해가 그다지 큰 중요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그람시에 대해 그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울트고 있는 점을 우리는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국

1991 “안토니오 그람시의 해제모니 이론”, 「사회비평」 1991.5.

김수행

1988 “영국사회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정치”, 김수행, 『자본론 연구 1』, (한길사)

김학노

1986 “그람시의 혁명전략 연구”, 김학노, 박형준(외), 『국가·계급·사회운동』(한울)

이내영

1986 “안토니오 그람시의 해게모니이론”, 김학노, 박형준(의), 『국가·계급·사회 운동』(한울)

이미숙

1991 “그람시·톨리아티의 혁명전략과 구조개혁론”, 「사회와 사상」, 가을 임영일

1985 “그람시의 해게모니론과 이행의 문제를”, 임영일(편역), 『국가, 계급, 해게모니』, (풀빛)

최장집

1985 “그람시의 해게모니 개념”, 『세계의 문학』, 봄

1989 “이탈리아 공산당의 노선분석”, 『경제와 사회』, 봄

Adamson, W.L.

1980 권순홍(역), 『해게모니와 혁명』(학민사, 1986).

Anderson, P.

1977 “The Antinomies of Antonio Gramsci”, *New Left Review* 100.

Bates, T.R.

1975 “Gramsci and the Theory of Hegemony”, *J. of History of Ideas* 36.

Bobbio, N.

1979 “Gramsci and the Conception of Civil Society”, C. Mouffe (ed.), *Gramsci and Marxist Theory*, Routledge & Kegan Paul.

Bocock, R.

1986 *Hegemony*, Ellis Horwood Limited & Tavistock Publications.

Boggs, C.

1976 *Gramsci's Marxism*, Pluto Press.

1984 *The Two Revolution*, South End Press.

Carnoy, M.

1984 한기범의(역), 『국가와 정치이론』, (한울, 1985).

Femla, J.V.

1981 *Gramsci's Political Thought*, Clarendon Press.

Forgacs, D.

1988 (ed.), *An Antonio Gramsci Reader*, Schocken Books.

1989 “Gramsci and Marxism in Britain”, *New Left Review* 176.

Foster-Carter, A.

1978 “‘접합’의 의미”, 김호진(편역), 『제3세계의 정치경제학』(한울, 1984).

Giovanni de, B.

1979 “Lenin and Gramsci: state, politics and party”, C. Mouffe (ed.), *Gramsci and Marxist Theory*, Routledge & Kegan Paul.

Gramsci A.

1971 *Selection from the Prison Notebooks*(SPN), International Publishers.

1977 *Selection from the Political Writings (1910~20)* (SPW I), International

- Publishers.
- 1978 *Selection from the Political Writings (1921~26)* (SPW II), International Publishers).
- 1985 *Selection from the Cultural Writings* (SCW), Harvard Univ. Press.
- Hall, S. et al.
- 1977 *Politics and Ideology: Gramsci*,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On Ideology*, Hutchinson.
- Hall, S.
- 1977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 Marx's Theory of Class", A. Hunt(ed.), *Class and Class Structure*, Lawrence & Wishart.
- 1979 "문화·미디어·이데올로기", 이상희(편역),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한길사, 1983).
- 1980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M. Gurevitch. et al.,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Methuen.
- 1983 "The Problem of Ideology", B. Matthews (ed.), *Marx: A Hundred Years On*, Lawrence & Wishart.
- 1985 "Signification, Representation, Ideology", *CSMC*, vol. 2, no.2.
- Hirst, P.
- 1976 "Althusser and the theory of ideology", *Economy & Society* vol. 5, no. 4.
- Hoffman, P.
- 1984 *The Gramscian Challenge*, Basil Blackwell.
- Jessop, B.
- 1982 이 양구, 이 선용(역), 『자본주의와 국가』, (돌베개, 1985).
- Laclau, E.
- 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New Left Books.
- Laclau, E. & Mouffe C.
- 1985 김 성기외(역), 『사회변혁과 해체모니』, (터, 1990).
- Larraín, J.
- 1979 한상진, 심영희(역), 『현대사회 이론과 이데올로기』(한울, 1984).
- Mclellan, D.
- 1986 *Ideology*, Open Univ Press.
- Mouffe, C.
- 1979 "그람시의 해체모니와 이데올로기 개념", 권유철(편역), 『그람시의 마르크스 주의와 해체모니론』(한울, 1984) (번역 일부 수정)
- Paggi, L.
- 1979 "그람시 마르크스주의의 일반이론", 권유철(편역),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모니론』(한울, 1984) (번역 일부 수정)
- Pierson, C.
- 1986 "La Terza Via", *Theory & Society* 15.
- Sassoon , A.S.

1982 “해개모니, 진지전 및 정치적 개입”, 최우길(역), 『그람시와 혁명전략』(녹두, 1984).

Simon, R.

1982 김주환(편역), 『그람시의 정치사상』, (청사, 1985).

Texier, J.

1979 “Gramsci, Theoretician of the Superstructure”, C. Mouffe (ed.), *Gramsci and Marxist Theory*, Routledge & Kegan Paul.